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Ego-Identity of School-Aged Children:
Effects of Level of Income and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이강이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Lee, Kang-Yi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level of income,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and ego-identity of school-aged children. The subjects were 356 children in the 6th grade selected from six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Keunggi-Do. The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on ego-identity and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 SD, Cronbach's α ,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level of income(antecedent variable)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perceived parental behavior(mediator) and ego-identity of school-aged children(dependent variable).
2. The effects of level of income on ego-identity of school-aged children became lower after control of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In other words,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level of income on ego-identity of school-aged children.

주제어(Key Words):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perceived parental behaviors), 소득수준(level of income),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ego-identity of school-aged children)

I. 문제의 제기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빈부 차가 증가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 및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관심은 1980년대 이후 비로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과 관련된 문제는 여타 다른 분야에 밀려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의 등록비 지원이라든가 학비 지원 또는 무료 급식과 같은 경제적 부조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질 뿐, 저소득층 아동의 심리적 발달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못사는 집 아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옷을 잘 못 입는다거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급우를 집단 따돌림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풍요로운 경제적 조건에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세대 속에서, 특히 외부의 시선에 민감해지기 쉬운 후기 학령기 아동에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치심을 경험(최은영, 1994)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정의 경제적 요인이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미칠 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항상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지닌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자아정체감은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기실현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면, 이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라든가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심

리적 건강성(resilience)¹⁾으로 작용한다.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아동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더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가족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들(박영애, 1995; Harter, 1982; Rogers, 1994)은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자아정체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이 소외된 심리, 물리적 환경 안에서도 적응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토대가 된다(유안진·민하영, 2001)는 점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일종의 심리적 자원으로 보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저소득층 아동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열악한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다수의 저소득층 아동이 존재한다.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다룬 국내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발달의 생태학적 관점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부모와 관련된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이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적응 문제에 원만히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한미현, 1996; McLoyd & Wilson, 1991). 그 중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이들의 발달 및 적응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그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심리적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가족 과정 모델(McLoyd & Wilson, 1991)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1) 심리적 건강성이란 아동의 대처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소(Osofsky & Thompson, 2000)로, 이는 아동이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로부터 쉽게 회복하거나 적응하는 능력으로 개념화된다.

가족원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 또는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도현심·최미경, 1998; 옥경희·김미혜·천희영, 2001; 이사라·박성연, 2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갖는 매개 역할이 중산층 이상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흔히 저소득층 아동이 중산층 이상 아동에 비해 자아개념과 관련된 부분에서 낮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인구학적 범주에 속해서라기보다는 저소득층 가정이 자주 직면하는 양육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정의 낮은 수입은 아동 발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충족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물리적 자극과 동기 부여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을 뿐더러, 부모의 심리적 긴장을 유발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Loyd, 1990). Weinraub와 Gringlas(1995)에 의하면,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에 비해 각종 발달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동이 편부모됨 자체의 인구학적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편부모 가정이 자주 직면하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편부모 가정은 직업의 불안정성이라든가 경제적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편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킨 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가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자녀의 발달적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아동은 중산층 이상 아동에 비해 부모로부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저소득층 아동의 부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어

주경·정문자, 1999; 이은주·이재연, 1999)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아동이 같은 또래의 중산층 이상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고 학업성취나 또래관계 등의 적응 측면에서 열악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부모가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든가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지적되는 등, 흔히 저소득층 아동이 중산층 이상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보이는 것은 두 집단이 경험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이 차이를 보인다면,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 효과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열악한 양육 자원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지각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주변 자원이 풍부한 중산층 이상 아동이 지각하는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부모 양육행동에 비해 아동의 심리적 적응 문제에 더 큰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매개 역할을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집단과 중산층 이상 아동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도현심·최미경, 1998; 박민선·박성연, 1999; 박영애, 1995; 어주경·정문자, 1999; 이사라·박성연, 2001; Garrett, Ngandu, & Ferron, 1994; Huston, Duncan, Granger, Bos, McLoyd, Vistry, Crosby, Gibson, Magnuson, Romich, & Ventura, 2001; Lally, Mangione, & Honig, 1988; Melson, Ladd, & Hsu, 1993)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집단과 중산층 이상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저소득층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만약 차이

를 보인다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발달 차이라든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증진시키는 증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매개 역할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가정의 소득수준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매개 역할을 한다면,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에 존재하는 유의한 관계가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제될 경우에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도가 감소하여야 한다(Baron & Kenny, 1986).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관련하여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가정의 소득수준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련성 및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후,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가정의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제한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력에 변화가 없는지 살펴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후기 학령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후기 학령기 아동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후기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근거해서 청소년기 동안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등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특히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고 또한 후기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아동의 개인적인 용돈 사용이 증가하고 가정의 경제 문제에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이사라·박성연, 2001; Chubb, Fetman, & Ross, 1997)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후기 학령기로 구분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 6학년 아동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서, 후속연구를 통한 자료 보완이 요구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영세민 아파트 밀집 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각 3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남녀 아동 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실 기재되거나 편부모 가정에 해당되는 질문지 17부를 제외한 35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에서 편부모 가정의 아동을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양육행동의 척도 문항이 양쪽 부모가 있는 아동을 전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분포는 남아 54%(192명), 여아 46%(164명)로 비슷하였으며, 부모의 연령 분포를 보면, 아버지의 경우 40대가 86%(306명)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40대가 73%(259명), 30대가 24%(87명)를 차지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생활실태론적 방법에 근거하고 가구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저소득층을 '도시 빈곤지역에서 가구소득이 150만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 개념 정의한 어주경·정문자(1999)의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집단을 저소득층 아동과 중산층 이상 아동으로 나누었다. 조사 결과,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이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아동이 102명(28%), 150만원 이상인 중산층 이상 아동이 254명(72%)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척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척도 및 가정의 소득수준과 기타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아정체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박경란, 1997; 박아청, 1995; Adams & Fitch, 1982)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유안진·민하영(2001)이 구성한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목표감, 자아미래감, 자아수용감, 자아주도감 및 대인친밀감의 5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그렇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따라서 응답 점수는 25점부터 10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의미한다. 척도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보인 자아정체감 점수는 평균 75.9점, 표준편차 10.8로 나타나서, 보통 이상의 자아정체감 수준을 보였다.

2)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박성연·이숙(1990), 박영애(1995)의 척도 중 부모의 온정-수용적 태도와 관련된 문항과 함께 Furman과 Buhrmester(1985)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어느 정도 지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의 예로 '부모님은 내가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돌보아주신다', '부모님은 칭찬을 자주 해주신다', '부모님은 늘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신다'가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9점에서 45점 사이의 응답범위 중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의 평균 점수는 34.0점, 표준편차는 5.18로 나타나서,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통 이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조사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응답 방법을 담임 교사에게 설명한 후, 담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대상 아동이 자아정체감 및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 대해 교실에서 바로 응답하도록 하여 즉시 회수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소득 수준과 기타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응답하게 한 후 담임 교사의 도움으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 및 편부모 가정에 해당되는 17부를 제외한 35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피어슨 상관관계 및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매개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모두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관계이어야 하고,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을 통제하였을 때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2) 척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안진·민하영(2001)을 참고

않거나 유의도가 감소하여야 한다(Baron & Kenny, 1986).

이에 따라, 먼저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1>을 보면, 소득수준은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r=.21, p<.001$)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r=.13, p<.05$)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학령기 아동은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고 자아정체감도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은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r=.3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학령기 아동이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도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의 소득수준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모델³⁾에 근거하여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자아정체

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첫 단계에서 가정의 소득수준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가정의 소득수준의 설명력이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통제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를 보면, 두 번째 단계에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추가 투입한 경우 첫 단계에서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던 가정의 소득수준($\beta=.21, p<.001$)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여전히 자아정체감과 유의한 관계($\beta=.16, p<.01$)

3)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제시한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에서는 독립변인(A)이 종속변인(B)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인(C)에 미치는 독립변인(A)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매개변인(C)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인(A)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A)과 매개변인(C)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이 두 개의 변인이 종속변인(B)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다. 그 결과, 첫 단계의 단순회귀분석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의 영향력보다 유의하게 나타난 영향력이 감소했을 때를 '부분적 매개'라고 하고,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유의성이 있었으나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사라졌다면 '완전매개'라고 하였다(오미경·박성연, 1998: p.220에서 재인용).

<표 1> 가정의 소득수준,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상관관계

	1	2	3
가정의 소득수준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13*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21***	.30***	

* $p<.05$ *** $p<.001$

<표 2>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B	β	R ²	adjR ²	F
1단계	상수	67.5		.04	.04	14.3***
	가정의 소득수준	4.9	.21***			
2단계	상수	49.6		.11	.11	19.1***
	가정의 소득수준	3.8	.16**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58	.27***			

** $p<.01$ *** $p<.001$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의 정도를 살펴보면 가정의 소득수준의 β 값이 .21에서 .16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을 통제하기 이전과 비교할 때 가정의 소득수준과 자아정체감간의 단순상관의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가정의 소득수준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의 소득수준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월 평균 가정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집단과 월 평균 가정 소득 150만원 이상의 중산층 이상 아동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과 <표 4>를 보면,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은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11%의 설명력을 보인 반면, 중산층 이상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에서는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6%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고 수용적

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정도는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령기 아동보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령기 아동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저소득층 아동과 중산층 이상 아동 사이에서 발견되는 자아정체감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 매개 변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영향력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초등 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나타난 주요 결과로는 우선,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가정의 소득수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수

<표 3>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의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B	β	R ²	adjR ²	F
상 수		52.3		.11	.10	11.53***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61	.33***			

*** p<.001

<표 4> 중산층 이상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의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중산층 이상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B	β	R ²	adjR ²	F
상 수		58.2		.06	.05	12.4***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55	.24***			

*** p<.001

용적이고 온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학령기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보인다. 이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된 바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했던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 역할 여부를 살펴보면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 변인이 통제될 경우, 가정의 소득수준이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이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McLoyd (1990)의 모델을 일부 지지한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협함으로써 지지적인 자녀양육 능력을 약화시키는 등 빈곤과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는 부모의 행동에 의해 중재된다(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Ho, Lempers, & Clark-Lempers, 1995; McLoyd & Wilson, 1991; Whitbeck, Simons, Conger, Wickrama, Ackley, & Elder, 1997). 위기집단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수용적이거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과정은 국내 선행연구(김선희, 2000; 어주경·정문자, 1999; 이선경, 1997)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변인이 통제된 경우에도 가정의 소득수준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는 - 비록 관계의 정도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내포되어 있는 빈곤 지위의 다양한 특성 때문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입은 부모의 교육이라든가 직업 지위를 통제할 경우에도 아동의 건강, 교육, 직업 획득 등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를 예언하며(Huston, 1991), 가정소득의 증가는 가정환경의 질을 개선시킴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Huston, McLoyd, & Coll, 1994)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소득수준이라는 단일 요인만을 가지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제한이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가정의 소득수준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특성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 중 특히 주목할 점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가정의 소득수준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 역할이 중산층 이상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사이에서 차이를 보여서, 중산층 이상 아동보다 저소득층 아동이 자아정체감에 있어 부모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민감한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사용하기 쉽다(김영희, 1996)고 지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소득층 아동이 부모로부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지각한다면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아정체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각종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든가 유용한 자원의 양이 중산층 아동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맞벌이 핵가족의 증가 추세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욱 심각해서, 상당수의 저소득층 아동이 부적절하고 취약한 주변 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다(김기환, 2001).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중산층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를 대체해서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양질의 양육자 또는 사설기관에의 접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중산층 아동의 경우 부모 이외에도 조부모, 친척 또는 가사조력자가 주변에 함께 있거나 또는 또래와 함께 하는 다양한 과외 활동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의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외에도 저

소득층 아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또래집단에 의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손쉽게 구입할 수 없게 되고, 또래 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또래관계에서 위축되는 등(박민선·박성연, 1999), 또래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에 있어서도 중산층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사회적 관계망과 자원을 가지는 중산층 이상 아동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 아동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및 자원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 결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라는 변인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매개 효과가 중산층 이상 아동의 경우보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및 자원의 차이가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환경이 제공하는 보호요인 중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과 가정의 소득수준이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건강성을 대변하는 자아정체감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부모 변인의 영향력이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 크게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위기집단 아동의 발달을 보호하는 심리적 건강성으로 부모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nezy, & Ramirez, 1999)는 점을 확인시켜줌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취약성이 큰 위기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에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에서는, 아동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에 대한 개입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변에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아동의 심리적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Masten, 1997; Werner, 1994). 특히 저소득층 아동과 같은 위험 집단의 경우에는 안정성과 지원을 제공

하는 의미 있는 관계의 성립이 결정적이다. 저소득층 부모는 대체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자녀에 대한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아동 발달 및 적응에 있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계의 맥락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지원을 제공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그들의 부모에게 가정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또는 부모의 복지를 개선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이 활발히 제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소득과 취업이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Mistry, Crosby, Huston, Casey, & Ripke, 2002), 부모의 안정적인 취업으로 인해 자녀는 부모의 온정을 더욱 더 지각하고 부모는 자녀의 활동을 이전에 비해 더욱 더 적절히 지도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소득층 아동이 그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 및 취업 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발달 과업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 부모의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중산층 이상 아동보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부모를 매개로 한 중재 프로그램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Dubow & Ippolito, 1994). 따라서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를 경감시키기 위해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교육비나 급식비 보조와 같이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선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저소득층 아동을 심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즉 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라는 두 가지 변인만을 놓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수준이 내포하고 있는 부모의 부부관계라든가 가족관계, 또는 빈곤의 지속성 여부, 아동 및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 및 자원 등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외의 다양한 변인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련 변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환(2001).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론적 개념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활용. 삼성복지재단(편),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pp.15-46). 삼성복지재단 제9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박경란(1997).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민선, 박성연(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아동학회지, 20(2), 57-74.
- 박성연, 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141-156.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어주경, 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오미경, 박성연(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11-227.
- 육경희, 김미해,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1.
- 유안진, 민하영(2001).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 아동학회지, 22(2), 133-147.
- 이사라, 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선경(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 모델. 숙명여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은주, 이재연(1999). 빈곤층 아동의 또래 역량. 아동학회지, 17(2), 195-207.
- 최은영(1994).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빈곤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Adams, G. R. & Fitch, S. A. (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cross-sequenti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574-58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lger, K. E., Patterson, C. J., Thomp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4), 1107-1129.
- Chubb, N. H., Fetman, C. L., & Ross, J. L. (1997). Adolescent esteem and locus of control: A longitudinal study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dolescence*, 32(125), 113-129.
- Dubow, E. F. & Ippolito, M. F. (1994). Effects of poverty and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on changes in the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401-412.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77-290.
- Garrett, P., Ngandu, N., & Ferron, J. (1994). Poverty experiences of young children and the quality of their home environment. *Child Development*, 65, 331-345.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Ho, C. S., Lempers, J. D., & Clark-Lempers, D. S. (1995). Effects on economic hardship on adolescent self-esteem: A family mediation model. *Adolescence*, 30, 117-131.
- Huston, A. C. (1991).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poverty among children.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pp. 282-315). NY: Cambridge Univ. Press.
- _____, Duncan, G., Granger, R., Bos, J., McLoyd, V. C., Vistry, R., Crosby, D., Gibson, C., Magnuson, K., Romich, J., & Ventura, A. (2001). Work-based antipoverty programs for parents can enhance the school performance and social behavior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72(1), 318-336.
- _____, McLoyd, V. C., & Coll, C. G. (1994). Children and poverty: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275-282.
- Lally, J. R., Mangione, P. L., & Honig, A. S. (1988). The Syracuse University Family Development Research Program: Long-range impact of an early intervention with low-incom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D. R. Powell(ed.), *Parent education a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pp. 79-104). Norwood, NJ: Ablex.
- Masten, A. (1997). *Resilience in children at risk*. In Research/Practice: A Publication from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and Educational Improvement. Minneapolis: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_____,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1999). Competent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143-169.
- McLoyd, V. C. (1990). The impacts of economics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_____, & Wilson, L. (1991). The strain of living: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 105-135). NY: Cambridge Univ. Press.
- Melson, G. F., Ladd, G. W., & Hsu, H. (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Mistry, R. S., Crosby, D. A., Huston, A. C., Casey, D. M., & Ripke, M. N. (2002). Lessons from New Hope: The impact on children's well-being of a work-based antipoverty program for parents. In G. J. Duncan & P. L. Chase-Lansdale(eds.), *For better and for worse: welfare reform and the*

- well-being of children and families*(pp.179-200).
- Osofsky, J. D. & Thompson, M. D. (2000). Adaptive and Maladaptive Parenting: Perspectives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J. P. Shonkoff & S. J. Meisels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2nd ed., pp. 54-75). NY: Cambridge Univ. Press.
- Rogers, C. R. (1994). 학습의 자유-인간중심교육-. 연문희(역). 서울: 문음사.
- Weinraub, M. & Gringlas, M. B. (1995). Single parenthood.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Vol. 3, pp. 65-8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 Werner, E. E. (1994). Overcoming the odd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5, 131-136.
- Whitbeck, Les B., Simons, R. L., Conger, R. D., Wickrama, K. S., Ackley, K. A., & Elder, G. H. (1997). The effects of parents' working conditions and family economic hardship on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self-efficac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4), 291-303.